



"새만금, 도민과 함께"

지난 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 민관협력 간담회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사)새만금사업법도민지원위원회 및 기업인·소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만금 올림픽 도시 실현'이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들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익산·김제 산업단지 2곳 최종 승인

도, 익산 제3산업단지 확장·김제 지평선 제2산업단지 지정 승인

산업용지 공급·기업유치 기반 마련... 올 하반기 착공

전북특별자치도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과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산업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내 주력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산업단지는 모두 올 하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공영개발 방식으로 각 시가 직접 시행한다.

현재 사전 토지 매입이 진행 중이다. 익산시는 기업 입주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3일반산업단지를 삼기면과 낭산면 일원 북동쪽으로 27만여㎡(약 8만3,000평) 확장한다. 총 490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까지 조성이 완료될 계획이다.

확장 부지에는 산업시설을 비롯해 내부 도로, 공원, 완충녹지 등 기반시설이 포함되며, 유치 업종은 화학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다.

김제시는 기존 산업단지가 모두 분양 완료됨에 따라 기업들의 지속적인 입주 요청에 대응하고자 상동동 45번지 일원에 88만㎡(약 27만평) 규모의 지평선 제2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한다.

총 사업비는 2,048억원이며, 202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산업단지는 주거·상업시설, 공원, 파크골프장, 휴게 공간 등 정주 여건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되며, 식료품, 전기장비, 전자부품, 금속가공, 기계 및 자동차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

이 입주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두 산업단지 조성으로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향후 기업 유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산업단지 조성은 통상 7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선제적으로 산업용지를 확보해 기업 입주 수요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추가 산업단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 국내 탄소복합재 산업 혁신기반 인프라 구축 '앞장'

산업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지원 구축' 공모 선정

총 115억원 투입... 재활용 탄소소재 산업 기반 구축

탄소중립 정책 등에 선제 대응... 관련 기술 국산화

전주시가 오랜기간 끈질기게 추진한 숙원사업들이 국가산업 일부분을 담당하면서 국내제일의 탄소산업 메카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지속 가능한 탄소소재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온 전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 구축사업' 중 '친환경 재활용 탄소섬유 기반 고성능 열가소성 복합재'에

국내 탄소복합재 산업의 혁신기반 인프라 구축에 앞장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전주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 구축사업' 중 '친환경 재활용 탄소섬유 기반 고성능 열가소성 복합재'에

전주시가 선정돼 오는 2028년까지 총 115억원(국 80, 도 3, 시 3, 기관 29)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탄소섬유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소재와 사용 후 폐기되는 탄소복합재를 재활용 가능한 고성능 복합소재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는 탄소중립 정책과 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국내외 환경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기술의 국산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DYETEC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전주대학교, 한국탄소노산업협회와 협력해 재활용 탄소섬유의 제조-성형-시험평가-신뢰성 검증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통합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재활용 탄소섬유의 전주기 통합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재활용 탄소섬유 기반 열가소성 부직포 및 중간재 제조 장비 △열습환경 신뢰성 평가 장비 △재활용 기반 열가소성 복합재 수지 흐름성 측정 장비 등 총 9종의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향후 스마트 제조 전환과 품질 고도화를 함께 추진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소에너지와 방산, 친환경 모빌리티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활용 가능한 친환경·경량 소재 개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재활용 탄소소재 분야에서 실증과 기업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탄소소재 국가산단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재활용 탄소소재의 국산화와 지속 가능한 탄소소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주가 국내 탄소복합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성 기자

올 정부 2차 추경예산 전북 4787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 'UP'

민생회복 소비쿠폰 포함... 신성장 동력·SOC 확충 등도 반영

김관영 도지사 "지역 정치권과 도·시군이 함께 노력한 결실"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이 우선 지급되고, 이후 전국민의 90%에게 10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정치권의 노력으로 국비보조율이 국회단계에서 10%p 증가한 90%로 상향되면서 지방재정 부담이 완화됐다고 전북자치도는 밝혔다.

미래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하여 △피지컬 AI 제조특화 선도사업(229억원),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175억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AI 등 신산업 육성 및 각 산업분야의 AI 전환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지역 정치권

과 도의 협력이 일궈낸 결과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분야에서도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사업에 보상비 120억원이 반영되어 연내 보상이 완료되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154억원)과 △배수개선사업(53억원) 예산이 각각 반영되어, 여름철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 구량

천 비점오염저감사업에도 13억원이 증액되어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활로가 마련됐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예산 6,00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향후 시·군 발행 수요에 따라 도 전체 국비지원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비수도권은 국비지원율이 8%, 인구감소지역은 10%로 상향 조정되어, 체감 할인을 확대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외에도, 향후 부처 풀예산 배분, 공모사업 대응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지원 등으로 예산 확보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국적으로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전북의 핵심사업들이 정부 2차 추경에 대해 반영된 것은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며 "이번에 확보된 예산이 경기 회복과 도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히 집행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쉽과 치유가 있는 곳 -

생태건강치유도시 진안

무더운 여름 진안에서 쉬어가세요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운일암반일암

운장산자연휴양림

NAVER

진안군

B2M

마이산